

김민재, 메달·트로피 들고 금의환향... "목표 다 이뤘다"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 33년 만의 리그 우승 주역
15일 기초군사훈련 위해 훈련소 입소...6월 A매치 결장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데뷔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고 최고 수비수에 등극한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민재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은색 모자에 흰색 셔츠, 청색 바지를 입고 귀국장에 나타난 김민재는 세리에A 우승 메달과 최고 수비수 상 트로피를 들고 팬들 앞에 섰다.
김민재는 "(데뷔 시즌이) 정신 없이 지나간 것 같다"며 "그래도 목표한 걸 다 이뤘다"며 시즌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미디어 요청에 우승 메달을 꺼내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100여 명 팬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은 김민재는 준비된 차로 이동해 공항을 빠져나갔다.
2022~2023시즌 세리에A 37라운드 볼로냐전에서 올 시즌 5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김민재는 5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치른 최종 38라운드 삼프도리아(2-0 승)와의 홈 경기에 결장했다.
대신 김민재는 경기 전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상 시상식에 참여해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 7월 페네르바체(튀르키예)를 떠나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가 한 시즌 만에 세

리에A 최고 수비수로 거듭날 거로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2018~2019시즌 세리에A 최우수 수비상을 받은 칼리두 툴리발리(첼시)를 대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민재가 자신을 향한 의구심을 지우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데뷔하자마자 존재감을 나타난 김민재는 지난해 9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A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데 이어 10월에는 이탈리아축구협회 선정 이달의 선수로도 뽑혔다.
팬들로부터 '철기둥'이란 별명을 얻은 김민재는 33년 만에 나폴리가 세리에A에서 우승하는 데 버팀목이 됐고, 2022~2023시즌 세리에A에서 가장 빛난 수비수로 등극했다.
김민재는 올 시즌 정규리그 35경기에 출전해 패스정확도 91%, 견어내기 122회, 태클 시도 55회, 가로채기 41회 등을 기록했다.
또 수비수임에도 리그 2골 2도움의 공격포인트도 남겼다.
타고난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중볼 결합 능력과 빠른 주력으로 세리에A 공격수들을 압도하며 현지의 찬사를 받았다.

덕분에 나폴리는 리그 33라운드 우디네세전에서 일찌감치 우승을 조기 확정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38경기에서 단 28골만을 허용했는데, 이는 리그 최소 실점 1위다.
세리에A '최고 수비수'로 인정받은 김민재는 유럽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유력한 행선지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꼽힌다.
국가대표도 김민재의 활약은 돋보였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몸을 살리지 않는 수비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도왔다.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부상으로써 기량을 모두 발휘하지 못했지만, 존재감만으로 대표팀에 큰 힘이 됐다.
월드컵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선 3월 A매치(콜롬비아 2-2 무·우루과이 1-2 패) 부진으로 '은퇴 해프닝'을 겪는 등 심리적으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클린스만 감독과의 면담 후 마음을 다잡았다.
세리에A 데뷔 시즌 커리어 하이로 찍은 김민재는 오는 15일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다.
김민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훈련소 입소로 김민재는 6월 A매치(16일 페루·20일 엘살바도르)와의 2연전 명단에 제외됐다.

뉴시스



전남도청 펜싱, 전국대회서 금·은·동 수확

김향 금메달·최세빈 은메달·박소형 동메달 획득



전남도청 여자펜싱팀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금·은·동 3개의 메달을 가져왔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청 펜싱팀이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3 펜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 여자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김향은 16강과 8강에서 각각 김한별(한국체대)과 강영미(광주 서구청)를 15대 9로 누르고 준결승에 안착했다.
이어 동료 박소형을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15대 14로 승리한 뒤 결승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5대 7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소형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최세빈은 16강에서 최혜정(대전시청)을 15대 13, 8강에서 전은혜(인천중구청)를 15대 9, 준결승에서 윤소연(대전시청)을 15대 8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전하영(서울시청)에 11대 15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김용을 전남도청 감독은 "국가대표 선발전 개인전에서 전남도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올 시즌 남은대회와 10월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KBO, 'WBC 기간 음주 사실 뒤늦게 논란' 김광현·이용찬·정철원 오늘 상벌위 개최

한국야구위원회가 상벌위원회를 열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간 음주를 한 SSG 랜더스 김광현, NC 다이노스 이용찬, 두산 베어스 정철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한다.
KBO는 "7일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에 대한 상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 유튜브 채널은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 WBC 1라운드 기간 대표팀 일부 선수가 유흥업소에서 음주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는 경기 전날에도 음주가 이뤄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KBO는 지난달 31일 해당 선수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WBC 기간 동안 경기 전날 밤 스카베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일인 3월7일과 휴식일 전날인 3월10일에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당시 대회에서 한국은 출전 끝에 B조 3위에 그쳐 3회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수모를 당했

다. 큰 충격 속에 대회가 끝난 지 두 달여 만에 대표팀 선수들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자 팬들에 큰 실망을 표했다.
과문이 일자 김광현과 이용찬, 정철원은 지난 1일 취재진을 만나 공개 사과하며 해당 선수들이 자신임을 스스로 밝혔다.
김광현은 "WBC 기간 내에 술을 마신 선수는 제가 맞다. 대회 기간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생각 없는 행동을 했다.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 야구계 선배와 후배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용찬과 정철원도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음주 관련 처벌 조항은 없다. 하지만 국가대표 운영 규정 13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다.

뉴시스

전국역도대회 금메달, 완도군청 7개·보성군청 3개 수확



보성·완도군청 역도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0개를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82회 문곡 서상전배 역도경기대회에서 완도군청이

금메달 7개·동메달 1개, 보성군청이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완도군청의 김동민은 61kg급에 출전해 인상 종목에서 125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수확한 데 이어 용상에도 157kg으로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인상과 용상 합계 282kg을 기록해 3관왕을 차지했다.
이양재는 +109kg급에 출전해 인상 166kg·용상 215kg, 합계 381kg으로 3관왕에 올랐다.
89kg급에 출전한 강민우는 인상 3차시기에서 156kg을 도전했지만 실패해 2차시기 기록인 151kg으로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용상에서 197kg을 들어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해 합계 348kg으로 2위와 1kg 차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보성군청의 이창호는 102kg급에 출전해 인상 160kg, 용상 200kg으로 금메달을 수확했으며 합계에서도 360kg으로 3개의 금메달을 가져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근대5종 전용태·김선우, 월드컵파이널 혼성계주 금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근대5종이 2023시즌 월드컵 파이널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용태(광주광역시청)·김선우(경기도청)는 5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파이널 혼성계주에서

펜싱,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359점으로 프랑스(1338)를 21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전용태·김선우는 이번에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펜싱 전체 1위, 수영 1위, 승마 2위를 기록한 뒤 마지막 경기인 레이저 런에서 선두로 출발해 무난하게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월드컵 파이널 개인전 메달 획득의 아쉬움을 혼성 계주 금메달로 달린 근대5종 대표팀은 6일 귀국한다.

뉴시스